“마음 바로 선 그 순간이 새해”

데스크 초대석

호주 시드니 정법사 회주 기후 스님

“부처님 제자라면 새해를 따로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바로 서는 그 순간이 곧 새해지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앞두고 만난 기후 스님의 첫마디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반세기가 넘는 수행자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출가 60년, 묵언 정진 6년, 호주 포교 30년. 평생 수행의 한길을 걸어온 스님은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 있었다. 짧은 여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후 스님을 출국 이틀 전인 12월 17일 경기도 안양에서 만났다.



기후(基厚) 스님은…1943년 안동에서 태어나 65년 범어사로 입산, 69년 통도사에서 성공 스님을 은사로 수계했다. 1971년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고 통도사와 해인사에서 강사를 지냈다. 인천 용화사, 봉암사, 통도사 등 제방 선원에서 안거 정진하고 경주 기림사 북암에서 6년간의 묵언 정진을 마쳤다. 1991년부터 호주에서 포교를 시작해 1993년 시드니 정법사를 창건했다. 2006년 위암 진단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 봉화 축서사 북암에서 정진했다. 2012년 다시 호주로 돌아가 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저서로 〈네가 던진 돌은 네가 꺼내라〉, 〈꿈속의 인연들〉, 〈시드니의 도반들〉이 있다.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올해로 창건 33주년을 맞은 호주 시드니 정법사. 사진 제공=맑은소리 맑은나라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질문이 이끈 출가

교리 공부로 풀리지 않던 의문, 참선으로

6년 묵언수행…괴로움은 ‘나’라는 인식서

교민 불자 호소로 호주에 포교 씨앗 뿌려

원력으로 일군 정법사 창건 30주년 맞아

한국불교·문화 알리는 민간 외교관 자임

암이 가르쳐 준 ‘삶의 균형’…고통도 도반

“수행자는 시대 거슬러 방향 제시해야”

하루 30분 ‘마음 어디로 향하나’ 살펴야

“어떻게 살아야 하나”에서 시작된 출가

사춘기 소년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만 맴돌았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 살 때 앓은 천연두가 남긴 얼굴 흉터로 학창 시절 내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상처는 깊었고 “왜 나만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나?” 묻고 또 물었다. 질문은 삶의 의미로 옮아갔다. 결국 고등학교 2학년 무렵, 부산 범어사 금강암으로 갔다. 그곳에서라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다. 치열하게 나 자신과 마주할 줄 알았던 암자에서의 생활은 그러나 속세와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졌다. 길을 나서 통도사로 향했다. 보광전에서 다시 행자 생활을 시작했다. 생활은 고됐지만 선지식 경봉 스님을 친견하고 월하 스님(조계종 제9대 종정)에게 가르침을 받는 순간순간이 환희로웠다.

2년이 지나 월하 스님의 상좌가 되겠다는 마음에 광목 두루마기를 다려 입고 별당에 들어갔다. 마음을 다해 삼배를 올린 후 상좌로 받아주시길 청했다. “근래엔 상좌를 안 뒀는데.” 그 한 말씀에 1년을 꼬박 기다렸지만 끝내 허락을 받지 못했다. 기후 스님은 “그때는 제 분수를 모르고 월하 스님의 상좌가 되고 싶다고 했다”며 웃음을 지었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은 수행자의 근기를 다지는 과정이었다.

교리로 풀리지 않던 의문, 참선으로

1969년 성공 스님을 은사로 수계한 후에도 갈증은 계속됐다. 경전에 답이 있을까 하고 홍법 스님에게 〈초심〉부터 〈서장〉, 〈절요〉, 〈화엄경〉까지 배웠다. 통도사와 해인사에서 중강을 맡아 교리를 깊이 파고들었다.

“그땐 공부가 부실했던 탓인지 아무리 배우고 가르쳐도 의문이 풀리지 않았어요.”

전환점은 참선이었다. 홍법 스님에게 “경전에서 막히는 대목은 참선을 해야 알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뒤, 스님은 새벽녘 절을 나서 전강 스님이 주석하던 인천 용화사로 향했다.

“선방은 내 처지에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마음만 챙길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 길이구나.”

봉암사와 통도사 등 제방 선원에서 안거에 들었다. 하지만 결제와 해제를 반복하는 생활은 마음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게 했다. 결국 1984년 경주 기림사 북암에서 묵언 정진을 시작했다. 말하지 않고, 절을 나서지 않고, 하루 8시간 이상 정진에 몰두했다.

초반 몇 해 동안은 답답함과 회의가 끊임없이 일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가장 근원적인 괴로움이 ‘나’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됐다. 외모와 체력, 존재에 대한 집착이 옅어지자 망상도 자연스레 가라앉았다. 6년간의 묵언 정진으로 자신과 삶에 대한 신뢰, 그리고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겠다는 원력이 생겼다. 이 경험은 이후 해외 포교의 밑거름이 된다.

시드니에 심은 포교의 씨앗

호주행은 계획이 아니라 인연이었다. 1991년, 기후 스님은 처음 호주 땅을 밟았다. 도반의 권유로 떠난 여정이었는데, 돌아오려는 스님을 붙잡은 것은 교민 불자들의 눈물 어린 호소였다.



기후 스님은 “하루 30분 만이라도 자기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스님까지 떠나시면 우리는 어디에 의지해야 합니까.”

그 한 마디가 발원이 됐다. 1993년 비자를 받아 다시 호주로 건너간 스님은 달마사와 홍법사를 통합해 ‘정법사’라 이름했다.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하겠다’는 서원을 담았다.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주거지역이라 종교활동 허가를 받지 못해 촛불만 켜도, 목탁만 쳐도 민원이 제기됐다. 세 번이나 쫓겨나길 거듭한 끝에 건물을 마련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태백산 토굴을 정리해 종잣돈을 마련하고 신도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았다. 정우 스님(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과 성화 스님(구미 남화사 주지)도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정법사를 마련한 후 8년 만에 종교활동 허가를 받았다. 그날 처음으로 대종을 울릴 수 있었다.

지난 2023년 창건 30주년을 맞은 정법사는 현재 대웅전과 산신각, 요사채, 교민을 위한 문화원 등을 갖춘 여법한 도량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불교는 물론 한국문화를 알리는 민간 외교관 역할도 자임했다. 지금까지 한국전쟁 참전용사 초청 위문 공연을 세 차례 개최했다. 함께 아리랑을 합창하던 순간, 참전용사들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 스님은 그날을 “법문보다 더 깊은 설법이 있던 자리”로 기억한다.

지난해에는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을 열었다. 호주에서도 한국에 대한 호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직접 김치를 담그고 이웃과 나누는 ‘K-문화’를 알리기 위해서다. 여기에는 건강의 중요성을 절감한 스님의 경험도 녹아 있다.

암이라는 도반, 그리고 다시 길 위로

2006년 위암 진단은 스님의 삶을 뒤흔들었다. 한국에 돌아와 수술한 후 항암치료 대신 자연치유를 택했다.

“병은 부조화에서 옵니다. 조화로 돌아가야 합니다.”

경북 봉화 토굴에서의 긴 시간은 삶과 죽음을 다시 바라보게 했다. 병은 스님에게 고통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되묻는 계기였다. 사람과 자연, 병과 고통까지도 도반으로 받아들이는 시선은 이후 저술과 법문으로 이어졌다.

“고향을 떠나 낯선 타지에서 살아가는 교민들은 심리적 압박을 크게 느낍니다. 이주 초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마음 터놓을 사람도 없었던 어르신들은 더 힘들었겠지요. 그분들을 위로하고 보듬어야겠다는 생각에 매주 경전을 함께 읽고 법회도 열었습니다. 대단한 가르침을 주려 하기보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부처님 가르침을 시대 거스르는 용기

기후 스님은 오늘의 한국불교를 향해서도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물질과 속도의 시대 속에서 불교마저 흐름에 휩쓸리고 있지는 않은지, 수행과 교화의 본령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물질주의라는 거대한 흐름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수행자만큼은 시대를 거스를 용기가 필요합니다. 불교의 역할은 시대가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으니까요. 부처님이야말로 시대의 혁명가 아닙니까.”

다시 호주로 향하는 스님에게 새해를 어떻게 맞아야 할지 물었다.

“분별의 의식[識]을 지혜[智]로 전환하는 전식위지(轉識爲智)의 실천, 그것이 수행입니다. 하루 30분 만이라도, 자기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참선이든 염불이든 좋습니다. 진심과 만나는 자리, 그곳에서 새해는 시작됩니다.”

기후 스님의 가르침처럼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마음을 돌이킨다면, 그 자리에서 이미 새로운 한 해는 시작되고 있을 것이다.